

## 문화부 "예술인촌 사업변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위한것"

■ 오마이뉴스 (news) 기자

<오마이뉴스>가 지난 20일 보도한 '문화부도 승인한 폐광 예술인촌 사업, 유인촌 장관 행차 뒤 찜질방으로 바뀌어'라는 기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론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문화부는 반론문을 통해 예술인촌 사업변경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문화부의 반론기고 전문을 실습니다. <편집자말>

2009년 7월20일자 오마이뉴스가 게재한 <문화부도 승인한 폐광 예술인촌 사업 유인촌 장관 행차 뒤 '찜질방'으로 바뀌어> 제목의 기사는 이해당사자인 연극배우 최종원씨의 일방적 하소연을 그대로 인용하여 정부가 마치 정치적 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는 오해를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소지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2004년부터 정부와 강원도는 예술인촌 사업을 포함한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입하여 탄광자원 등을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오마이뉴스에서 거론된 대상지(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구 삼탄 정암광업소)에 위치한 폐광 시설은 매우 독특한 형태와 거대한 규모로 과거의 산업과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랜드마크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시설 활용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과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기존의 예술인촌 계획보다 확대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탄광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활용을 통해 경제와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계획보다 더욱 큰 그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문화부는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유인촌장관을 비롯한 많은 실무자들이 실제 현장을 방문, 사업의 타당성을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5월 7일 정선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의 사업 목적인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촌 사업 보다 이 지역과 연관이 깊은 탄광자원을 활용하고, 주변 지역의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확대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정선군에서도 이 방향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예술인촌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09.5~11월), 정선군에서 연구용역 완료 후 예술인촌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예술인촌 사업변경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예술인촌 사업 변경계획서에는 지역 예술인을 배려하여 예술인 전용공간 및 예술 치유시설을 일정 부분 할애하는 구상에 웰빙스파가 포함되어 검토한 바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짚질방' 같은 시설은 없음도 첨언합니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예술인촌 사업을 포함한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폐광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07.30 11:12

© 2009 OhmyNews